

# 남원창극 '가인춘향' 인기 뜨겁다

남원시립국악단 출연... 판소리 진수·국악관현악 연주 등으로 매회 성황

남원시립국악단이 출연하고 문화예술조합 심진강이 주관하는 남원창극 '가인춘향'이 지난 5월 14일 개막공연 만석을 시작으로 이어진 공연에서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으로 매회 객석을 가득 채우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올해 창극공연은 소리꾼 송선달이 남원의 늙은 기생 청향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판소리 춘향가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춘향전에서 벗어나서 춘향가 탄생의 이야기를 새로운 상상력을 더해 극중극 형식으로 풀어냈다.



남원시립국악단이 출연하고 문화예술조합 심진강이 주관하는 남원창극 '가인춘향'이 지난 5월 14일 개막공연 만석을 시작으로 이어진 공연에서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으로 매회 객석을 가득 채우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2017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을 수상한 임현빈 명창은 극중 송선달 역할을 맡아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익살스러운 연기와 언어유희, 관객과 호흡을 선보이며 극을 이끌어 나간다. 거기에 늙은 기생이지만 소녀의 마음을 간직한 청향, 악랄하면서도 익살스러운 탐관오리 변사또, 돈을 밝히지만 인간적인 필사쟁이 변씨 등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더해져 공연 중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춘향가의 백미 사랑가 대목은 달을 듯 달지 않는 춘향의 교태와 애타는 몽룡의 모습이 화려한 군무와 어우러져 꽃과 나비처럼 아름답게 그려졌다. 여기에 춘향의 절규에 한이 섞인 이별가 대목은 구름이 더해져 슬프기보다는 처절한 감정을 묘사해 관객들을 몰입하게 하

고 공연 전반에 흐르는 국악관현악 연주하는 곡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현장감을 더한다.

남원창극은 2013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한옥자원활용 아간상설 공연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공연은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화인당 야외공연장에서 열리고, 야외공연 특상 상 우선으로 인

해 취소된 경우 일정이 연장될 수 있다.

한편, 남원시립국악단은 5월부터 올해 상반기 풍성한 공연 프로그램을 시작, 민속악을 중심으로 공연하는 '전통소리청'은 6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광한루원 안월정에서 펼쳐지고, 퓨전국악을 선보이는 '예루원의 밤풍경'은 7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화인당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문화재단, 전주한벽문화관 신임 관장에 김철민 임명



전주문화재단(대표 백옥선)은 전주한벽문화관의 신임 관장으로 김철민 씨(만 52세)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단은 1·2차 공모를 통해 김철민 팀장을 한벽문화관 활성화를 견인할 책임자로 관

단했다.

김 관장은 52세(1971년생)로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한국소리문화전당,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거쳐 2018년부터 전주문화재단 한벽운영팀장으로 근무했다.

김 관장의 정식 취임은 6월 2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전주한벽문화관은 2002년 개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예술가들의 발표 공간으로 각광 받는 전주의 대표문화시설로서 전주마당창극, 기획공연, 전통문화교육체험, 전통혼례, 국가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방방곡곡 찾아가는 '신나는 예술버스'

전북도, 60여개 단체 참여 80회 공연

전북도가 문화소외지역 및 축제, 시군 명칭지 등을 찾아가 다채로운 공연을 제공하는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화소외지역 및 시·군명칭지,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며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공연을 제공하는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이 지난 21일 장수누리파크 공연을 시작으로 시동을 걸었다.

'신나는 예술버스 사업'은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공연단의 창작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지역 공연문화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전북

도의 대표 문화예술프로그램이다. '신나는 예술버스'는 '예술을 싣고 지역 방방곡곡 찾아가며 공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총 80회 공연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연은 1회당 60분(4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진행하고, 60여 개 공연단체가 대중가요, 민요, 국악연주, 전통무용, 재즈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운동목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신나는 예술버스 사업이 코로나 여파로 지역 공연계가 많이 어려운 이 시기에 공연단체에 활력을, 지역민들에게는 휴식과 위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꿈의 무용단" 단원 모집합니다

전북대 고현정 교수팀, 6월 10일까지 전주 중학생 대상

'2022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에 선정된 전북대학교 고현정 교수팀(무용학과)이 이 교육사업에 참여할 무용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떼)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발레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고현정 교수가 중심이 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쁘띠 예술가'의 Think like a Freak! 라는 주제의 교육을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발레를 토대로 연극과 미술, 영화, 무용 분야 예술가들과 협업해 청소년들이 직접 스토리텔링부터 공연 기획, 제작, 출연까지 직접 해보으로써 몸으로 사고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기간은 6월 10일까지며, 전주시 중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네이버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발레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한 도시지역 청소년들을 50% 이상 모집해 문화의 다양성을 공유하고 '따뜻한 동행'이라는 대학 가치도 실현할 계획이다.

참여 학생들은 '꿈의 무용단원'이 돼 6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진과 재학생, 그리고 예술교육 및 미디



어, 발레, 현대무용, 설치미술, 대본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창의적 융·복합 예술작품을 만들어 간다.

이 교육을 주관한 고현정 교수는 "발레와 타 예술장르의 만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 분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이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대학이 가진 우수한 인·물적 인프라가 지역의 청소년, 특히 문화향유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해설이 있는 부안 영화 음악제' 31일 개최

'부안 아트 딜리버리' 첫 번째 프로그램

부안군은 오는 31일 오후 6시에 물의거리 야외 공연장에서 '해설이 있는 부안 영화 음악제'를 개최한다.

음악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하는 '2022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안 아트 딜리버리'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유수영 지휘자가 이끄는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번 공연에서 영화 국가대표, 울드 보이,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 투 동막골의 OST를 포함한 총 8곡을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여 연주하며, 테너 이승희가 함께하여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오케스트라의 영화 OST 연주를 통해, 고전적 이미지의 클래식에서 벗어나 군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것"이라며 "신에 위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